

예수님 오신날 축하메세지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깊은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고 어려운 이들을 보듬어,
희생과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이 세상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2015년, 어느 때보다 상생과 평화가 절실한 해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서로를 마음의 온기로 대하면,
갈등과 폭력을 벗어나 공감과 화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 우리의 삶은 더없이 성숙해집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모두가 부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으로
모두가 마음의 등불을 밝혀
서로에게 빛이 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불기2559(2015)년 12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